

반면 양자를 바친 가정은 배후에서 아이를 지키며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된다. 바친 가정의 심정은 조부모의 심정과 같다. 바치는 가정이 이 과정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심정적인 세계는 하늘부모님의 심정의 깊은 내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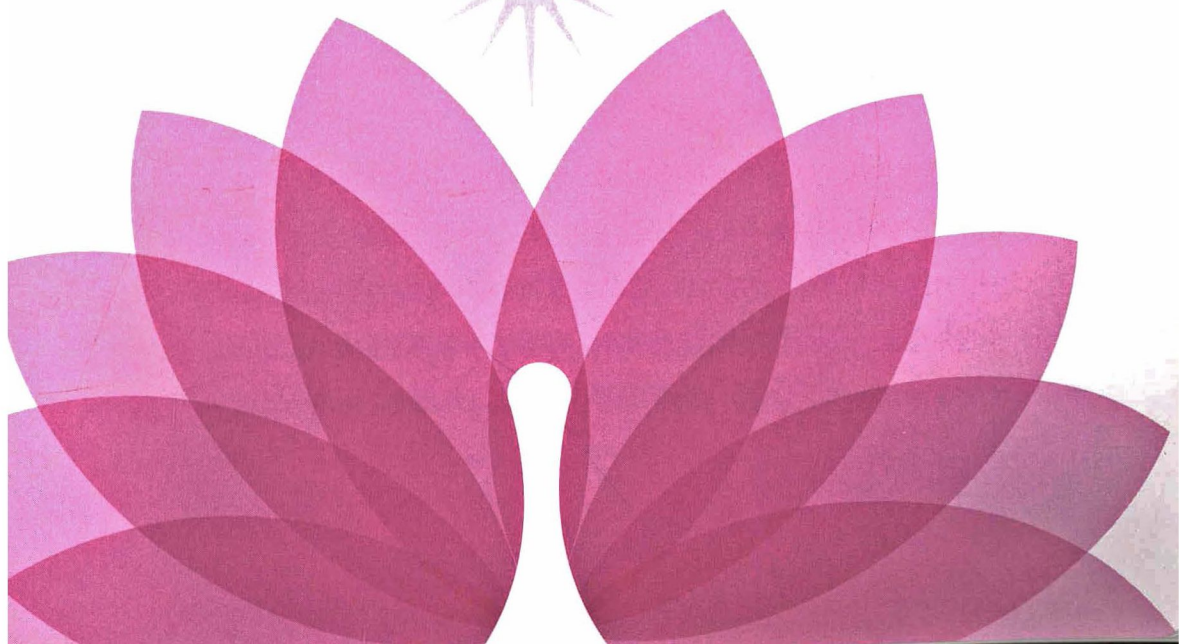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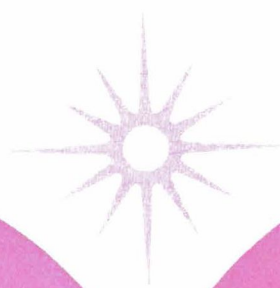
두 집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반드시 가정국에 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가 되면 가정국에서는 입양되는 양자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양가 대한 기록을 보관할 것이다. 이러한 보고는 입양을 고려하는 가정이나 양자를 바치고자 하는 가정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고 격려가 되기 때문이다. 보고서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양 가정의 이름과 축복 날짜
- 아이의 이름, 생일, 그리고 성별
- 봉헌식 혹은 입양식 때 찍은 사진
- 입양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

축복자녀들은 하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속 목회자에게 입양에 대해 보고하며 봉헌식이나 입양식에 참석할 수 있게 초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창기에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참부모님의 승인이 필요했다.

제4장

성화식





성화식의 원리적 의의와 구분

성화식의 원리적 의의

성화식(聖和式)은 지상의 육신 생활을 정리하고 천상에서 영인체로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축하 의식이다. 같은 생활권으로부터 떠나간다는 의미에서 섭섭함이나 아쉬움은 있지만, 원리말씀에서는 성화식을 어떤 축복의 의식보다도 더 아름답고 빛나고 기쁜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참아버님께서는 성화식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미국이 나를 반대하지만 내가 미국을 살리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국민이 불원한 장래에 알 것입니다. 지금 완충지대에 왔습니다. 진정한 양심을 가진 미국인이란 순전한 사랑에 가서 접붙임 받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길이 좀 다르고 곡절은 좀 있을 뿐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본심은 어디를 따라가야 하는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전한 사랑의 이론입니다. 공산당과 싸우

는 것도 공산당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홍진이가 가지 않았으면 애승일을 못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인류나 영계 전체를 놓고 볼 때 레버런 문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하여 오늘날 원수를 대해서 승리했다는 팻말을 꽂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사탄 자신도 '당신은 과연 하늘의 사람이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죽은 자리에 내세우고도 눈물을 안 흘리고 공의의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가는 것을 볼 때 사탄마저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망권이 하늘의 생명을 썼지만 사랑의 힘을 다 커버해 넘어가게 됩니다. 홍진이는 갔지만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랑이 남았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통일교회는 항시 좋을 것으로 봅니다. 사탄세계 사망권 앞에 아들을 쥐서 사망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사랑권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한 3천 명이 모이고 72개국의 우리 식구들이 전부 모여 정부는 정부대로 협조하여 에스코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꽃차라는 것은 대통령 이상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정부에서 허락하여 그렇게 했다는 사실은 세계사적인 일입니다. 하늘편을 중심삼고 이와 같은 장례식은 역사 이래 처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것을 현실에서 실천하여 원수를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자극제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한 입장에 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왔고, 사랑을 가지고 살다가 사랑의 목적으로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130-162, 1984.01.08)

“죽음이란 단어는 신성한 말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그 단어를 '성화(聖和)'로 고쳐 발표했습니다. 지상계의 삶을 꽃피우고 열매맺어 알곡을 품고 환희와 승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때가 영계 입문의 순간입니다.

니다. 기뻐해야 할 순간입니다. 마음껏 축하하고 전송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흘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성화식(聖和式)이란 이처럼 성스럽고 숭고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모시고 영생을 즐기러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새색시가 시집가는 그 순간보다도 더 가슴 떨리고 흥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2011.4.3. 천정궁)

성화식의 전통은 문흥진님의 세계승화식(昇華式)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84년 1월 8일 문흥진님께서 하늘부모님의 뜻을 위하여 희생되신 후 참부모님께서 참사랑으로 특별한 정성과 조건을 세워 애승일(愛勝日)의 의식을 거행하심으로써 승화식(昇華式)이 시작되었다.

참부모님께서서는 하늘부모님 섭리의 승리적 진척에 따라 2011년 11월 9일 (천력 10월 14일) 한남동공관에서 승화식을 성화식으로 바꾸어 주셨으며, 김상철 선교사(UTS 초대총장)가 성화식 1호로 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성화자가 하늘부모님 섭리에 특별한 공로가 있을 경우 참부모님께서 시호(휘호)를 내리셨다.

성화식의 구분과 지침

성화자의 공적에 따라 천주성화식(천지인참부모님), 세계성화식(참가정, 천일국 최고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협회성화식(원로 및 선배 가정, 협회 성화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교구성화식(원로 및 선배 가정, 교구 성화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교회성화식(축복 가정, 교회 성화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가족성화식 등으로 구분하게 된다.

그리고 성화식의 기간에 따라 13일 성화식(참부모님), 7일 성화식(세계성화식), 5일 성화식(세계, 협회 성화식), 3일 성화식(협회, 교구, 교회 성화식), 1일 성화식

(어린이, 사고사망 등 특별한 경우) 등으로 치러진다.

성화식을 거행하는 동안은 영계에서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식장이나 진행과정도 침울하거나 삭막하지 않고 은혜롭고 성스러운 분위기가 되도록 정성을 다해야 한다. 봉화(꽃)는 화려하고 밝은 색으로 꾸미며, 식순 팸플릿도 밝게 만든다.

축복가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화장(火葬)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참부모님께서 국가적 상황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화장을 하여 수목장·자연장을 할 수 있다고 허락하셨다. 축복받지 않은 일반 식구는 성화식을 해서는 안 되며 장례식으로 해야 한다. 또 축복가정으로서 자격을 포기한 자나 축복가정으로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도 성화식을 할 수 없다.



성화식 절차와 준비

성화식 절차

1) 임종(臨終)

임종이 가까우면 가족이 함께 모여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임종하게 되면 교회에 알리어 임종예배를 드린다. 봉안소(빈소)를 차린 후 이후의 일정을 세우고 성화식을 위한 준비를 한다.

2) 입전식(入殿式)

임종 후 24시간이 지나면 성화복, 전(殿) 등을 준비하여 염습(殮襲)을 하고 입전식을 갖는다. 입전식 이후 유가족은 하얀색의 성화복을 입고 상식을 올린다.

3) 귀환식(歸還式)

귀환식은 성화식장으로 떠나기 전 봉안소(빈소)에서 직계가족이나 3위기대, 혹은 친척과의 송별의식이다.

4) 성화식(聖和式)

성화식은 가족, 친지들이 천상으로 올라가는 성화자를 마지막으로 환송하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의식이다.

5) 원전식(原殿式)

원전식은 육신이 본전에 자리 잡는 의식으로서, 전을 잘 안치한 다음 위에서 세 번째 횡대를 열어 놓고 원전 예배를 드린다.

6) 추모기도회

원전식을 마친 후 성화자가 생활하던 곳에 단(壇)을 설치하고 상식을 올린다. 성화식 날로부터 3일, 21일, 40일(성화식 다음날부터), 100일에 가능한 한 원전지에 가서 추모기도회를 갖는다.

성화식 준비

1) 성화위원회 구성

천주성화식, 세계성화식 등 중요한 성화의례 전반에 대한 준비 및 진행을 위하여 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이때 위원회는 고문,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집행위원회로 구성한다. 교구나 교회 성화식에서는 위원회를 구

성할 필요가 없다.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부와 같이 상황에 맞게 구성하여 운영한다.

- **총무부** : 업무분장 및 각부 업무조정, 각종 기구 및 재료 구입, 팸플릿 제작, 영정준비, 차량 동원 및 배차, 식 전체의 진행, 기타
- **재정부** : 재정관리, 성화성금 접수
- **의전부** : 성화자에 대한 의전, 봉송(운구), 봉송복, 전(殿), 명정, 교기, 관보, 봉송차(장의차) 준비, 성염 및 성별
- **치산부** : 원전지 작업, 진입로 개설 및 정비, 봉송로 개설, 간이화장실 설치
- **시설부** : 봉안소(빈소) 시설, 성화식장 시설
- **관리부** : 차량 관리, 화환(조화) 관리, 식장 주변 경비 관리
- **숙식부** : 집행위원 숙식, 내빈 숙식, 원전지 집행위원 및 참례자 식사 관리
- **홍보부** : 녹음, 비디오 및 사진 촬영, 보도 통제 관리, 외부기자 관리
- **섭외부** : 각종 신고, 허가, 기타 섭외
- **안내부** : 공항, 교통안내, 차량 편의 및 숙식 편의, 통역, 참례자 안내, 리본 달아주기, 기타

2) 성화 신고 및 안내

축복가정이 성화하면 유가족은 당해 교회에 속히 알린다. 오랫동안 공적인 활동을 한 성화자에 대해서는 양식에 따라 공적 조서를 협회에 올려 시호, 원전지 등 참부모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을 수 있다. 교회는 협회본부 가정국으로 성화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양식: 별첨 1 참조)

성화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안내장을 만들어 발송한다.(성화자, 성화일시, 분향장소, 성화식 일시 및 장소, 원전지, 상주 연락처 등) 안내장 양식은 성화자

구분에 따라 양식은 다르다. 축복가정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안내장

○○교구 ○○교회 ○○축복가정 ○○○님께서 천일국 ○년 천력 ○○월 ○
○일(양력 ○○.○○) 오전(후) ○○시 ○○분, 자택(○○병원)에서 숙환(사고)으
로 성화하셨습니다. 이에 성화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가. 성화일시

일시: 천일국 ○○년 천력 ○○월 ○○일(양력 ○○.○○) 오전 ○○시

분향소: ○○병원 성화식장 ○○호실(전화: ○○○-○○○○)

나. 성화식

일시: 천일국 ○○년 ○○월 ○○일 ○○시

장소: ○○병원 성화식장

원전장소: ○○원전(주소, 전화)

3) 명정(銘旌)

빨간색 천에 흰색 혹은 금색 글씨로 한다.

우측 측면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작은 글씨로 쓴다.

중앙 위치에 축복가정의 경우: ○○○ 祝福家庭 ○○○之殿

예) 1800 祝福家庭 ○○○(직위)之殿, 이때 ○○○축복가정을 작은 글씨로 상

단 좌우로 쓴다. 직위는 공적 직위가 확실한 경우 기록한다.

축복가정 자녀의 경우 : ○○○ 祝福家庭 子女 ○○○之殿

일반 식구인 경우 : 우측 측면에 가정연합을 작은 글씨로 쓰고 중앙에 天民之徒 ○○○(직위)之樞로 크게 쓴다.

시호가 있는 경우에는 시호를 중심으로 기록한다.

4) 묘석

묘석의 형태에 관한 것은 가족이 선택할 수 있다.

묘비에 기록할 내용은 우측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쓰고 중앙 상단에 교회 심볼, 그 밑에 ○○○축복가정, 중앙부분에 성화자의 이름, 묘비 좌측에 생년월일, 성화일시, 참부모님께서 성화자에게 특별한 시호를 하사한 경우 우측 가정연합 다음에 새긴다. 묘비 좌측 측면에 후손들의 이름을 새긴다.



임종과 입전·귀환식

임종이 가까워지면 자택일 경우 간단히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힌다. 임종 시 유언을 기록(혹은 녹음)하고, 성화자 좌우에 식구들이 둘러앉아 찬송과 기도를 한다. 임종하게 되면 임종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입전 시까지 안치한다.

임종 후 시신과 주변 환경을 성염으로 성별한다. 성화식장을 이용할 경우 협조를 받아 성화자가 잘 안치되도록 한다.

임종예배와 봉안소 설치

1) 임종예배 순서

- 찬송(성가 7장)
- 대표자 기도
- 말씀훈독

- 위로말씀
- 기도
- 찬송
- 각자 기도

2) 봉안소(빈소) 설치

- 성염으로 봉안소(빈소)를 성별한다.
- 단상에 2개의 성초를 밝힌다.
- 영정 사진을 준비한다. 영정에 리본은 흰색 또는 분홍색을 매고 단 중앙 상단에 설치한다.
- 단상 영정 주변의 꽃들은 천일국 국화인 장미와 백합을 사용하며 전체적으로 밝고 아름다운 꽃으로 꾸민다. 화환도 리본을 ‘성화(聖和)’라고 쓰며 밝은 색의 꽃들로 만든다.
- 방명록을 비치하여 참례객을 맞이한다.
- 성화(聖和) 리본 및 봉투를 준비한다.
- 헌화용 꽃(장미, 백합 등)을 비치한다.
- 성가 테이프를 준비하여 은은하게 틀어 준다.
- 유가족 대표와 가족, 교회 식구들이 3~5시간마다 찬송과 기도를 드린다.

3) 복장

직계 가족은 남자의 경우 흰 와이셔츠와 흰 넥타이, 검정 혹은 곤색 양복을 입는다. 여자의 경우 흰색 한복 또는 미색 등 밝은 계통의 옷을 입는다. 다른

참례자들도 같은 종류의 정장을 입고 남자의 경우 흰색 넥타이를 맨다. 사정으로 평상복을 입었을 경우에도 검정색 넥타이는 피한다. ‘성화’라고 쓴 리본을 상의 우측에 부착한다. 그러나 축복가정이 아닌 장례식일 경우 흰색 넥타이를 매지 아니한다.

3) 참례 순서

참례자는 먼저 방명록에 기록을 한다.

참례자는 성화자 앞에 꽃송이가 향하도록 헌화하고 1배한다.

성화자를 위한 기도(묵도)를 드리고 나서 유가족과 인사를 나눈다.

입전식

입전(入殿)을 위해 흰색 또는 미색 계통의 속옷, 바지저고리, 두루마기, 예복 등의 성화복을 준비한다. 성화복은 나일론과 같은 화학섬유로 된 소재는 쓰지 않는다. 전(殿), 보초, 창호지, 명정, 교기(관보), 전 밧줄, 약솜, 알코올 등을 준비한다.

1) 입전식 절차

- 입전은 임종 후 24시간이 지나서 실시한다.
- 집례자는 입전식장 내부를 성별한다.
- 유가족이 중심이 되어 시신의 굳어진 몸을 풀어 바른 자세로 잡아 주고 수세식을 실시한다. 전신을 3번 깨끗이 닦아 준다. 시신의 중요한 부분은 고인과 가장 가까운 유족이 씻어 준다.

- 유족이 교회 성화위원이나 성화식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성화복을 입힌다.
- 창호지로 발과 다리를 싼 다음 버선을 신긴다.
- 바지에 아래 속옷을 함께 끼워서 입힌 다음, 대넒과 허리띠를 한 번 맨다.
- 양 손을 창호지로 싼 후 예복 가운 속에 저고리, 속저고리 등을 함께 끼워 발아래서부터 입힌다. 윗옷을 올려 입힐 때 손 부위에서 양 손도 끼워서 입힌다.
- 저고리 고름을 매고 예복을 여민 후 띠를 맨다. 다음 수대(手帶)를 맨다. 축복가정은 안대(眼帶)를 하지 않는다.
- 입전 시 성화자의 흐트러짐을 막기 위해 창호지 두 장을 길게 연결하고 네 번 접어서 끈을 만들어 어깨, 허리, 발 세 곳을 묶는다.
- 입전할 전을 성별한 후 안을 깨끗이 한 후 창호지를 깎는다. 그다음 요를 깔고 성화자를 입전한다.
- 묶은 종이 띠를 푼다.
- 전과 몸 사이를 보초로 채워서 몸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
- 본향의 세계로 입성하는 성화자의 용모를 보기 좋게 해드린다. 여자의 경우 시집가는 새색시와 같이 예쁘게 화장을 해준다.
- 전의 뚜껑이 열린 채로 입전예배를 드린다. 이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입전예배 후 마지막 하직 인사를 나눈다.
- 천일국 경전, 《원리강론》, 《뜻길》, 성가, 찬송가, 성경 등 성화자가 평소 사용했던 책을 머리 양 옆에 넣어 준다.
- 입전예배를 마친 후 전의 뚜껑을 닫는다.

○ 입전을 하고 나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심볼이 있는 전보(관보)를 씌운다.

2) 입전예배 식순

입전예배 시 성화자의 머리 쪽에 유족대표, 삼위기대, 가족이 위치하고 식구들이 전 주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 개회선언

○ 시호가 있는 경우 시호 복사본을 집례자가 성화자 가슴에 봉헌한다.

○ 찬송

○ 보고기도

○ 헌화(집례자와 가족대표)

○ 훈독 및 말씀(해원의식말씀 중 집례자는 “성화자는 생시에 맺힌 일이 있으면 다 풀고 갈 것이며, 보내는 식구들도 다 풀고 보내기를 바랍니다.”라는 해원의 말씀을 한다)

○ 찬송(유족 및 참례자들의 헌화와 함께)

○ 축도(유족은 전을 잡고)

○ 묵도

○ 폐회선언

3) 상식(上食)

상식은 입전식 이후부터 1일 1식을 올린다. 올리는 시간은 오전 7시에 한다. 1일 3식을 해도 좋으며, 이때에는 오전 7시, 오후 1시, 오후 7시에 올린다. 상황에 따라 입전식 이후에만 할 수 있다.

○ 묵도

○ 보고기도

○ 상식

— 집례자가 소리내어 “진지 드립니다.” 한 후

— 수저를 밥에 꽂고

— 젓가락으로 모든 반찬을 거친 다음 제자리에 놓은 후 잠시 묵도를 한다.

— 수저를 빼 밥을 세 번 떠서 물그릇에 말아 드린다.

○ 묵도 후 철상한다.

귀환식

귀환식(歸還式)은 직계가족이나 삼위기대, 혹은 친척과의 송별의식으로, 입전 후 성화식장으로 떠나기 전에 성화한 집이나 병원 등 봉안소에서 거행한다. 귀환식은 봉안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성화식장으로 떠나기 위해 집례자나 유족대표가 기도를 한다.

○ 묵도

○ 귀환식 선언

○ 인사

○ 기도

○ 봉송



성화식과 원전식, 추모기도회

성화식(聖和式)은 하늘부모님의 참사랑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살다 간 성화자의 한 생애를 기리며 유족과 참여자 모두 본연의 참다운 삶을 다짐하는 엄숙한 시간이다. 성화식은 천상으로 올라가는 성화자와 마지막 작별을 하는 송별시간이다. 천상세계에서 성화자가 영원한 새 삶을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 그리고 절대선령과 영위하도록 기도해 준다. 참석자들은 승리와 영광의 성화식을 위해 지상생활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늘부모님의 참된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의식이 되어야 한다.

성화식

1) 성화식장 준비

천일국 국화인 장미와 백합으로 준비한 영정 주위를 보기 좋게 만들고 성화식 단 전체를 화려한 꽃들로 꾸민다.

- 성염으로 성화식장을 성별한다.
- 성화식 단 위에 영정을 중심으로 양 옆에 2개의 성초를 밝힌다.
- 방명록을 비치하여 참례객을 접수한다.
- 성화(聖和) 리본과 봉투를 준비한다.
- 헌화용 꽃을 비치한다.
- 성화식 플래카드를 부착한다(아래 양식 참조).

2) 성화식 순서

- 묵도
- 개회선언
- 천일국가 제창
- 보고기도
- 헌화(집례자 내외, 유족대표)
- 약력보고
- 송사, 송가, 송시
- 추모영상
- 성화사
- 헌화
- 찬송
- 축도
- 유족 인사
- 폐회선언

원전지로 옮기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영정, 봉화(성화식에 놓았던 꽃바구니, 화환 리본), 헌화에 사용할 꽃(대형 화환에서 뽑아 준비할 것) 등이다.

봉송위원은 8명의 남자로 하며 복장은 원칙적으로 봉송복을 입는다.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면 검정색 계통의 양복(흰색 셔츠, 흰색 넥타이)을 입고 통상적으로 흰색 장갑과 가운을 착용한다.

봉송과정은 맨 앞에 집례자가 성염을 뿌려 성별하면서 선행하고 그 뒤를 시호(또는 위패), 그리고 영정이 따르고 뒤를 이어 봉송위원이 봉송한다. 봉송위원 뒤에는 유족, 친족들, 교회식구들의 순으로 따른다.

원전식

원전식(原殿式)은 육신이 본전에 자리 잡는 의식이다. 치산위원들은 원전지에 미리 가서 원전을 위한 땅을 정리하고 집례자는 원전지와 그 주변을 성별하고 성도를 뿌려 성화자의 본전과 본향원을 연결하는 기도를 한다. 원전지에 봉송된 성화자의 전(殿)은 원전 가까이 안치하고 전 밑에 앞뒤 고임목을 받친다. 시호(위패)와 영정은 가슴에 안거나 원전지 상단 중앙에 안치한다. 유족대표와 유족은 원전지 주변에서 묵도하며 기다린다.

원전 바닥을 고르고 전을 안치한 후 전과 흙벽 사이를 흙으로 메워 정리한 후 전 위에 명정과 교기를 덮는다. 전을 안치하는 동안 식구들은 계속해서 성가를 부른다. 횡대를 덮고 정리한 다음 세 번째 횡대를 열어 놓고 원전식을 한다.

1) 원전식 순서

- 개회선언
- 찬송
- 보고기도
- 헌화(집례자 내외, 유족대표)
- 원전사(집례자는 원전사 말미에 최종적으로 해원의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생전에 맺
힌 것이 있다면 다 풀고 가족이나 그 밖의 모든 분들도 맺힌 것이 있다면 다 풀고 보낼
수 있도록 권고한다)
- 헌화(유족 및 참례자)
- 헌토(헌화 후에 세 번째 횡대를 덮고 집례자 내외, 유족, 참례자 순으로 헌토를 한다)
- 축도
- 유족 인사
- 억만세 삼창
- 폐회선언

성분(成墳)이 끝난 후 가족끼리 드리는 의식을 평토(平土)제라 한다. 평토제는 유족 대표의 인사와 기도로 간단히 마친다. 평토제는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모든 원전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영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성화식 전체를 끝맺는 기도회를 갖는다.

2) 유품의 처분

성화자가 평소 사용하던 물건은 유족의 뜻에 따라 보관 또는 처분한다. 성화식에서 사용했던 영정은 성화자를 위한 단(壇)을 만들고 그 위에 올려놓거나 집 안의 좋은 곳에 안치한다.

추모예배

원전식을 마친 후 3일째 되는 날에 성화자를 위한 단을 설치하여 영정을 올려놓고 성초를 밝힌 후 3일예배를 갖는다. 성화자가 하늘부모님의 뜻을 중심하고 영원한 영계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한 후손과 항상 같이 하여 하늘부모님 뜻 성사에 협조해 주기를 기도한다. 그 후 추모 정성은 40일, 100일, 그리고 매년 성화일에 한다.

1) 삼일예배

성화식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영계생활을 위한 부활의식으로서 원전지에 가서 드리는 기도회로 직계가족과 삼위기대, 가까운 친척, 친지가 기도회를 갖는다. 추모를 위한 음식을 준비한다. 원전의 뒷손질과 잘못된 것을 시정한다.

- 개회선언
- 찬송
- 보고기도
- 헌화 및 헌배
- 흠향
- 훈독 및 말씀
- 기도
- 음복
- 폐회선언

2) 21일 추모기도회

성화식으로부터 21일째 되는 날에 21일 상식이 끝나는 기념기도회를 가정이나 원전지에 가서 드린다. 추모 음식을 준비하여 삼일예배 순서에 준하여 실시한다. 상황에 따라 21일 추모기도회는 생략해도 된다.

3) 40일 추모기도회

성화식 다음날로부터 40일째 되는 날에 부활기간 40일 기념기도회를 가정이나 원전지에 가서 드린다. 추모 음식을 준비하여 삼일예배 순서에 준하여 실시한다.

4) 100일 추모기도회

성화식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에 가정이나 원전지에 가서 기도회를 드린다. 추모 음식을 준비하여 삼일예배 순서에 준하여 실시한다.

5) 성화 추모기도회(예배)

매년 성화자의 성화한 날 저녁 7시에 추모기도회 또는 예배를 실시한다. 추모 음식을 준비하여 삼일예배에 준하여 진행한다.